

정부와 기업 '원팀'으로 중동시장 공략한다

- 4. 5. 문체부 '제2중동붐TF', 중동진출 관련 관광·콘텐츠 업계와 간담회 개최
- 시장조사부터 법인설립·계약 체결까지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제2중동붐TF'는 4월 5일(수)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TF팀장인 정향미 문화정책관 주재로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광·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원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경험이 풍부하고 관심 높은 기업들 한자리에
그간의 성과 공유 및 건의 사항 청취로 '라마단' 이후를 체계적으로 준비**

지난 1월, 문체부는 중동 국가 정부의 K-콘텐츠·관광에 대한 관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중동붐TF'를 구성했다. 이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와 소통하며 중동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조만간 이슬람교의 금식성월(禁食聖月)인 '라마단'(3월 23일~4월 21일)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교류·협력 개시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지혜를 모으고자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터글로벌 곽영호 대표이사,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이사, 크리에이티브 임혜민 대표이사, 김향기 야놀자 CR실장, 정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창업팀장(이상 관광 분야), 베이비샤크게임즈 김청용 대표이사, 조남권 라이브케이 공동대표, 지경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지원본부장(이상 콘텐츠 분야) 등 중동시장에 정통한 관광·콘텐츠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중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또한, 중동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현지 한류 열풍 활용, 법·제도 분석 등 민관이 ‘원팀(one team)’을 이룬 전략적 접근 필요성 제기, 해외 진출 관광기업지원 체계 효율화 등 논의

기업인들은 중동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산업 다각화·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이 하나의 팀(one team)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초기 인적·물적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현지 법률, 문화, 시장 정보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현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제기됐으며, 한류에 대한 중동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두바이지사 등 현지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기업들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즈니스센터(현 10개소)와 해외관광기업 지원센터(현 2개소)를 2027년까지 각각 50개소, 10개소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 지원체계와 현장 밀착형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비즈니스센터 내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의 임차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며, ‘무바달라’ 등 중동 국부펀드가 우리 콘텐츠·관광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 정보 측면에서는 현지 지원기관의 자료수집과 함께, 콘텐츠 수출 플랫폼 ‘웰콘’ 내 ‘한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법령, 문화, 시장 등 맞춤형 심층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다양한 현지 지원기관과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콘’ 내에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즈매칭 전·후로 충분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하여 계약 실질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향미 TF팀장은 “중동 국가 정부의 K-콘텐츠·관광에 대한 관심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동 방한 관광객의 증대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원팀’ 정신으로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계속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정책관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국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휘경 (044-203-2566)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권수진 (044-203-2861)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종우 (044-203-2867)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31)
	국제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안승연 (044-203-2839)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